

2024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고린도후서

메시지 10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화목시켜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서 삶으로써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화목의 사역

성경: 고후 5:18-20, 아 6:4 상, 히 9:3-4

I. 사람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되기 위해서는 화목의 두 단계가 요구된다 — 고후 5:18-20.

- A. 화목의 첫 번째 단계는 죄인들을 죄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도록 하셨다 — 고전 15:3.
- B. 화목의 두 번째 단계는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사는 믿는 이들을 육체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사람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부활 생명 안에서 그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셨다 — 고후 5:14-15.

II. 우리는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서, 즉 하나님 자신 안에서 살도록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그분으로 적셔져 그분의 성소, 거룩한 성, 궁극적인 지성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아 6:4 상, 엡 1:4, 2:22, 계 21:2, 16, 비교 출 26:2-8, 왕상 6:20.

- A. 바울의 모든 서신은 지성소를 목표로 삼는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지성소 안으로, 즉 그들의 영 안으로 이끌기 위해 분투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 고전 2:14-15, 3:1, 3, 고후 1:12, 2:12-13(고전 3:1 각주 2의 둘째 단락 읽기).
- B. 구약의 성막의 예표에 따르면 고린도 사람들은 성막 입구에 있는 첫째 휘장, 막을 통과했다(출 26:36-37). 그러나 그들은 아직 성소를 지성소로부터 분리하는 둘째 휘장, 내적인 막을 통과하지 못했다.
- C.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아 6:4 상)가 되기 위해 이미 갈라진(마 27:51, 히 10:20) 둘째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영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했다(고전 6:17).
- D. 우리가 하나님의 새 창조물로서 그분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도 우리의 육체를 처리하는 보다 분명한 십자가의 체험을 통하여 휘장 안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궁극적인 부름이 필요하다 — 히 10:19-20.

III. 그녀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생명의 성장에서 진보할 때 그리스도의 연인은 휘장 안에서 생활함(아 5:2-6:13)으로써 육체와 타고난 사람과 옛 사람을 이긴다.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사랑스럽게 되며 디르사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둘러싸여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성소 곧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한다(아 6:4 상).

- A. 비록 하나님의 성소는 하늘들에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표징하는 휘장에 의해 두 부분, 곧 밖의 성소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 안의 지성소로 나뉜다.
- B.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는 부정적인 것인 우리의 육체가 있다.
 - 1.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휘장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찢어졌다 — 마 27:51.

2. 믿는 이들과 관련하여 그 휘장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을 온전하게 하시어 그들이 지성소인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 갈 5:24, 롬 8:6, 13, 고후 12:7, 계 21:22.
3. 아무리 성숙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의 몸이 변형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육체 곧 휘장이 남아 있다 — 빌 3:21.
4. 우리의 체험에서 휘장, 곧 육체는 반드시 찢어져야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찢어진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 안에서 살아야 한다 — 히 10:19-20.
5. 우리는 매일 십자가의 공과를 배우고 십자가의 처리를 체험함으로써 휘장을 통과하여 휘장 안에서, 곧 지성소 안에서,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 — 눅 9:23, 갈 5:24.
6. 육체는 소망이 없으며 우리를 언제나 매순간 영으로 돌이키고, 주님을 신뢰하고, 더 이상 우리의 타고난 존재 안의 모든 어떠한과 가진 것으로 구성된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한다 — 빌 3:3-7.

C. 그리스도의 연인은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 안에서 성숙하여 하나님의 건축물이 된다.

1.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으로 합병되어 그분의 거처, 그분의 성소가 된다 — 계 2:4, 요 14:20-21, 23, 엠 3:17.
2.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 연합, 합병되고자 하는 열망을 주고,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그 사랑은 우리에게 그분과 연결, 연합, 합병되고자 하는 열망을 준다 — 요일 4:19, 8, 16.
3. 첫째 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 번째 위치를 드림으로 우리는 신성한 로맨스의 모든 면에 참여하여 확대된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 — 골 1:17 하, 18 하, 시 27:4, 계 21:9-10, 16.
4.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성숙에 이르도록 성장하여 건축되는 것이다(그리스도의 몸의 건축과 연관됨) — 엠 4:12-16, 3:8.
5. 구약에서 하나님의 건축물은 디르사와 예루살렘으로 예표되었고, 신약에서 이 건축물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다. 몸의 건축은 유기적이며 우리의 생명의 성장과 성숙에 달려 있다 — 엠 4:15-16, 히 6:1 상, 골 2:19.
6.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아내(엠 5:25-32, 비교 창 2:22)인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건축은 지성소의 완결인 거룩한 성, 곧 영원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백성의 상호 거처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계 21:2-3, 16, 22).

IV. “둘째 휘장 뒤에는 다른 한 성막이 있었는데, 그곳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지성소는 금향단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만사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 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 히 9:3-4.

A. 감추어진 만사는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고 동화시킨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하나님을 위한 영원한 기념이 된다.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고 동화시킨 그리스도가 교회 생활 안에서의 하나님의 건축의 핵심 요점과 주요 항목이다 — 출 16:31-36, 계 2:17, 요 6:57, 63, 렘 15:16.

1. 바깥뜰 안쪽에 장막이 있었고, 장막 안에 궤가 있었고, 궤 안에 금항아리가 있었고, 금항아리 안에 감추어진 만사가 있었다. 감추어진 만사가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의 핵심 요점인 것처럼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고 동화시킨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의 핵심 요점이다.
2. 감추어진 만사이신 그리스도는 금항아리이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궤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사시면서 지성소의 실재가 되신다. 그러므로 성막 안으로 합병되는 길은 감추어진 만사를 먹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먹을 때 우리는 더욱 우주적인 합병체이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합병된다 — 요 14:16-20, 8:31, 15:5, 7.

- B. 싹 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 안의 부활 생명이 되셔야 한다는 것과 이 생명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성숙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 민 17:1-11.
1. 민수기 16 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반역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열 두 명의 인도자들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 따라 열 두 지팡이를 취하여 증거막 안의 궤 앞에 두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막대기에 싹이 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 민 17:5.
 2. 열 두 개의 막대기 모두 잎이 없고, 뿌리 없고, 메마르고, 죽은 것이었다. 어떤 것이든 싹이 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이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하며 봉사의 근거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관계없는 것임을 본다. 따라서 싹 난 지팡이는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에 권위가 있게 하신다.
 3. 모든 봉사의 원칙은 싹 난 지팡이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열 한 개 지팡이를 모두 인도자들에게 돌려주시고 아론의 지팡이만 영원한 기념으로 궤 안에 두셨다. 이것은 부활이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 안에서 영원한 원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민 17:9-10.
 4.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낮추는 체험이다. 지팡이는 사람의 위치를 상징하는 반면에 싹이 나는 것은 부활 생명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만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낫다고 말할 것이다 — 비교 막 11:9, 고후 3:5, 4:5.
 5. 부활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활을 아는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소망을 포기한다. 그들은 자신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안다.
 6. 타고난 힘이 남아 있는 한 부활 능력이 나타날 여지가 없다. 사라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삭이 오지 않을 것이다 — 창 18:10-15, 21:1-3, 6-7.
 7.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타고난 영역에 속하고,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부활의 영역에 속한다. 부활은 우리를 넘어서는 것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말한다 — 마 19:26, 막 10:27, 눅 18:27.
 8.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마지막에 도달해야 한다. 그럴 때 그는 자신이 완전히 쓸모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무능력함을 한번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 부활은 우리는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의미한다 — 비교 고후 1:8-9, 4:7.
 9.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단지 어려울 뿐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만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다. 그 영만이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고 그 영만이 이기는 이가 되실 수 있다.
- C. 언약의 돌판, 곧 율법의 돌판은 신성한 생명의 법을 상징하며, 신성한 생명의 법은 신성한 생명에 속한 자연스러운 능력, 자동적인 기능, 타고난 재능, 신성한 역량이다 — 롬 31:33, 히 8:10, 비교, 롬 8:10, 6, 11, 10:12-13.
1. 이 역량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안에서 그분으로 조성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증가와 확대가 됨으로써 그분의 영원한 표현을 위한 그분의 충만이 될 수 있다 — 엡 1:22-23, 3:19-21.
 2. 더욱이 생명의 내적인 법의 역량은 우리를 온갖 기능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도록 조성시킨다 — 엡 4:11, 16.
 3.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동안 생명의 법은 기능을 발휘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만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태짓고,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한다 — 롬 8:2, 28-29.
 4. 생명의 법의 기능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우주적인 표현을 가지실 것이다.